

“강운태·민형배, 좌파인사 기용” “최영호, 4대강 사업 반대”

박병중, 나로호 실패 정부 책임으로 돌려·강완목, 야당 인사 강사진 문제 교부금 감액·예산 삭감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강력 대응 조치 명시

MB국정원 호남 단체장 5명 사찰 내용

이명박(MB) 정부시절, 국정원은 호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5명을 국정운영 저해 인사로 잡았다.

당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시장은 재임시절 각종 대북교류·지원 사업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촉구해왔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강 전 시장이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시장이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으로 6·15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MB정부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한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문건에 기술했다. 또한, 강 전 시장이 시정내 신설된 인권 자문관과 담당관에 종북 인사를 연이어 기용하는 등 좌파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인권자문관에는 안중철씨, 인권담당관에는 이경원씨가 임명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정원은 안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북활동에 주력해왔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강 전 시장이 전 직원 조회 등에서 “MB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반값등록금 세입 금지 반대로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반정부 언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에 포함된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박병중 전 전남 고흥군수, 강완목 전 전북 임실군수 등이 포함됐다.

민 전 구청장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지역 좌파모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민 청장이 구청장 취임 이후 계약직 공무원 4명 전원을 좌파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 발족 추진을 통해 지역 좌파세력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통로로 만들고 있다고도 적시했다. 특히, 미군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 광산구내 미공군 주둔지 오염실태 정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는 이유로 지역내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사찰 문건에 적었다.

국정원은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서 무상급식 투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하고, MB정부

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점을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청장이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리비아 커피’에 비유하며 무상급식 투표 실시 자체가 망국행위라며 강력 비난한 것을 사례로 적었다.

박병중 전 고흥군수는 나로호 발사 실패를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대정부 비난 여론을 조장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당시 고흥군 나로호 이민회가 교육과학부와 어업비 보상비 문제 등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강완목 임실군수가 국정

[호남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광운태 (광주시장)	○ 대북정책 비판 → 지역중심세력이 주축한 6·15 공동선언 11년 행사에 참석,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으로 6·15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북정책을 비판 ● 민·국정원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좌파모임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으로 계속 활동 ○ 좌파인물 중용 → 시장내 신설된 인권자문관·담당관에 종북인물을 연이어 기용하는 등 좌파행보 계속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북활동에 주역해 온 안중철(56세)을 인권자문관, 국보법 위반 전력 이경원(50세)을 인권담당관에 임명

[호남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좌파인물 중용 → 구청장 취임 후 신발만 깨달지 공무원(4명) 전원을 좌파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 운영 ● 민·국정원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좌파모임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으로 계속 활동 ○ 반이탈민 조장 → 미군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 의혹 관련 미공군 주둔지 오염실태 정밀조사용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2011.5)하는 등 지역내 반미감정 조장 ● 좌파세력 중용 → 구청장 취임 후 계약직 공무원 4명 전원을 좌파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 운영 ● 민·국정원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좌파모임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으로 계속 활동
최영호 (전남 남구청장)	○ 세입자를 무리 배운 선동 → 서울시의 세입자 무리 배운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리비아 커피’에 비유하며 무상급식 투표 실시 자체가 망국행위라며 강력 비난 ○ 영산강사업 반대 → 영산강 송전탑이 소래해 준역에 건설될 경우, 각종 재기시마다 보 건설·건설 등 영산강사업 반대 여론을 선동하는 등 반정부 언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
강완목 (전북 임실군수)	○ 지역인 대상 종북사상 주입 → 지역인 대상 종북사상(리얼리티 이데올로기)을 주입하면서 박근혜 현 정부 등 좌파·야당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조장, 지역내 종북세력까지 주입 ● 민·국정원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좌파모임인 임실지역 좌파모임인 임실지역 좌파모임에 종북사상 주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
박병중 (전남 고흥군수)	○ 나로호 관련 대정부 비난 여론 조장 → 고흥군 나로호 이민회 등 주축시 나로호 발사실패를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리비아 커피’에 비유하며 무상급식 투표 실시 자체가 망국행위라며 강력 비난 ● 지역인 218명이 보상을 청구해 높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9월)을 앞둔 시점에서 보 보상협의를 나설 계획

이명박 정부 국정원 호남권 광역·기초단체장 사찰 문건

원 사찰 문건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강 전 군수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 입실 아카데미’를 주최하는 과정에 초청한 강사진을 문제 삼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야당 인물 위주의 강사진을 초청한 것에 대해 좌파·야당 인사 위주 강사진을 통해 지역 내 종북·좌파의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정부 국정원의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 사찰은 대부분 ‘종북·이념 오염·주민주권’ 등 이른바 ‘색깔론’이 주요 이유였고, 4대강 사업 등 MB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장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사찰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 감액과 지방재정 발행 중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삭감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해아한다고 명시해 ‘호남 차별’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전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전 국민 지원금 공론화...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야권이 ‘4·7 재보궐 선거용’이라고 강력 반발, 상당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변에 편승되는 추경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는데다 단기적 재정 확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해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이낙

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계획도 소개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공론화하자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싼 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야당의 품격을 진즉에 포기한 듯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논쟁에 가세해 판을 키웠다. 유 전 의원이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또 호남 찾은 이낙연 “지역현안 적극 협조하겠다” 전북 부안·익산 방문 텃밭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시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3월 9일 이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도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전북 부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야외 활동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 부족(40억원)을 건의받자 “추경에 반영하든지, 총사업비를 변경해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주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2년 후에 5만명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대회는 인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한 이후 가장 큰 세계적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새만금 지구 인근의 농림부 소유인 ‘해장 석산’을 부안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 매각해달라”는 부안군수의 요청에 “(농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는 농민과 농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국내 로컬푸드 의 도시”라면서 “다른 지역도 로컬푸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익산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 중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빈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20일 전북 부안군을 찾아 권익현 부안군수로부터 지역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격차와 사회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같다”면서 “양극화 해소에 당력을 집중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당 대표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던 일부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강도 높은 발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비대면 시대!
안전하게 제증명서
발급 받으세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홈페이지에서 쉽게! 제증명서 발급받으세요

홈페이지 발급

-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모바일 앱 발급

-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발급 방법 동영상 보기

- ▶ Youtube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똑똑하고 안전한 제증명서 발급방법
- ▶ 제증명서 비대면 발급 방법 동영상 보기 QR코드



발급 증명서 종류는?

- ▶ (자격)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 (징수) 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거



리



국민건강보험



호남제주시지역본부

두



기

